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rading@hanafos.com

꺾일 줄 모르는 주식시장처럼 국제 계육가격도 꾸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작년 4/4분기와 비교하면 약 60%이상 인상된 가격이지만 좀처럼 약세로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해외시장 가격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계육의 경우 3년 주기로 그 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각종 무역규제와 질병이라는 독립변수가 있지만, 1차 생물시장의 특성상 일정한 그 래프를 나타낸다는 것이 업계의 경험 많은 분들의 이야기다.

지난 8년간 데이터를 만들고 연구하다 보니, 지금이 3년 만에 한번 오는 이른 바 '닭고기 랠리' 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생계시세만 조금 더 양호했더라도 소 위 '한번 땡길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올해가 지나면서 '치킨 랠리' 는 소멸될 것이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AI라는 불청객은 다시 오지 않을까 싶다.

한국 시장과 관련된 세계 닭고기 흐름을 이해하려면 5개 국가의 흐름을 이해하면 된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일본이 그것이고, 각각의 가격변수에 의해서 대 한국 수출가격이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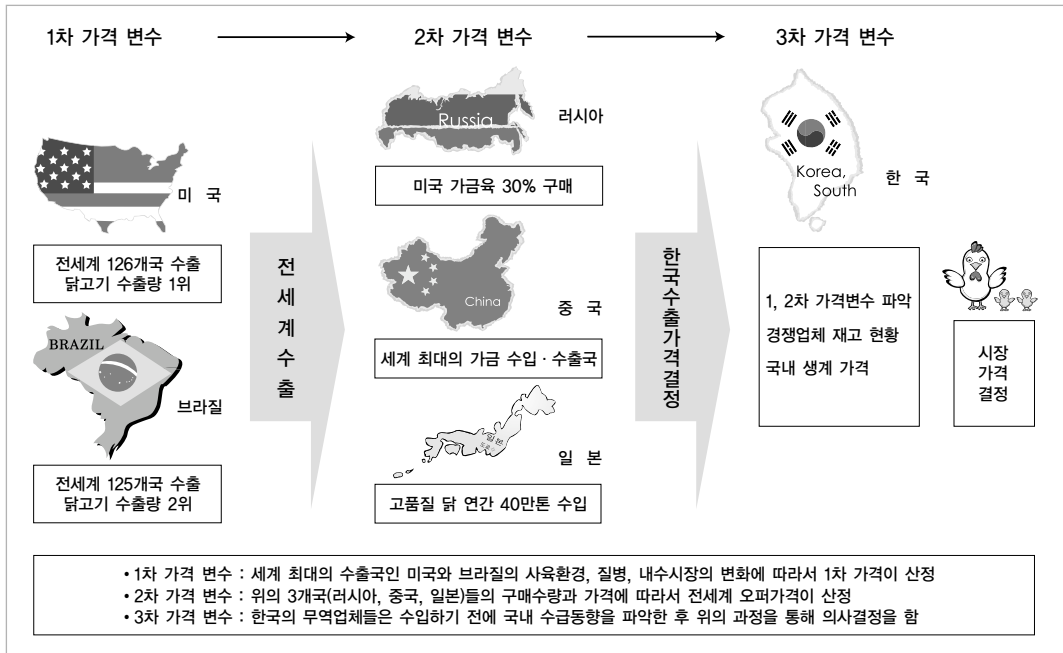
1차 가격변수는 세계적 가금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들은 세계 130여개국에 가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자국의 사육환경, 질병, 내수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2차 가격변수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미국산 가금육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입장에서 보면 사각(Leg Quarters)의 최대 수출국이다. 일단 러시아가 계속해서 구매하면, 국제 장각(Regular Whole Legs)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가금육 수입국가이면서 수출국이다. 브라질과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하는 동시에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구매력은 실로 대단하다. 2006년의 경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수입한 수량보다 4/4분기동안 수입한 물량이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의 구매력은 실로 폭발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그림 1〉 해외 닭고기 가격 설정 과정



※ 출처 : (주)메리트무역의 '해외 닭고기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중 일부

적이다.

세 번째는 일본이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은 품질이 매우 좋고,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 비단 닭고기 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경우도 일단 구매가 지속되면 좀처럼 오퍼가 나오기 어렵고, 한국은 그 다음이다.

이와 같이 5개국의 거래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면, 특별한 독립변수가 없는 한 2~3개월 정도 흐름이 지속되고, 한국에 공급되는 수입육 가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3차 가격변수는 한국 무역업체의 의사결정이다. 1, 2차 가격변수를 파악한 후 국내의 생계시세 및 경쟁업체의 재고현황을 파악한 뒤 최종 거래물량과 희망가격을 결정한다. 수입 원료육의 수익력이 매우 악화되어 과거와 달리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미국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1,450~1,550불, 사이즈 장각(Size whole legs)의 경우 1,700불~1,800불, 사각(Leg Quarters)은 1,150~1,200불에 형성되고 있다.

미국내 육계생산량 대비 내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수출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격 급락의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국 업체들은 국내시세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주문을 지양하고 있어 넓적다리(Bone In Thigh)와 사이즈 장각(Size Whole Legs)은 꾸준히 품귀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들은 냉동 창고에 입고되기도 전에 팔린다고 한다.

브라질

중국과 일본시장이 매우 좋다. 2~3개월 주춤했던 정육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향후 물량에 대해서는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 2,000불선까지 기대하고 있다. 날개(Wings)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2,400~2,500불까지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한 듯 최근 상향된 가격 조정이 있었다.

중국

물량이 부족하다. 일본의 업체들이 공장을 방문해 3개월 물량을 대량으로 가져감에 따라 한국의 수출물량은 감소될 것이다.

톤당 2,700불 했던 80g 스팀꼬치의 경우 최근

3,000불까지 오른 상태이며, 향후 강보합세를 보이거나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6월이 되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스팀꼬치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2/4분기 동안 해외시장 가격은 고공비행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요인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월이 되면 중국산 가공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며, 미국산과 브라질산 또한 러시아의 구매가 지속되는 한 강보합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시장흐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K>

‘월간 닭고기’ 창간 12주년 기념호 광고계재 안내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국내 계육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닭고기 전문지입니다.
 오는 2007년 7월호는 ‘월간 닭고기’ 창간 12주년 기념호입니다. 창간기념호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께서는 편집부 (031-707-5722~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닭고기 창간 12주년 기념호 지면별 광고금액>

[2007년 6월 현재]

광고 게재면		광고료	비고
창간기념 특별광고	월간 닭고기 DM 봉투(칼라)	3,000,000원	※ 본 광고금액은 창간기념호에 한함. ※ 월간 닭고기 DM 봉투광고의 경우 1번 인쇄로 1년간 사용. 칼라광고는 2도 기준. ※ 이벤트 엽서광고는 1회 기준. ※ 잡지 칼라광고 중 '본문 내지 반단 광고'의 경우 본문 편집에 따라 개수가 틀려질 수 있음(선착순으로 게재). ※ 부가세(VAT) 없음. ※ 광고지면에 따라 책 증정
	월간 닭고기 DM 봉투(흑백)	2,500,000원	
	이벤트 엽서	1,000,000원	
잡지광고 (칼라)	표2(표지 2면)	1,200,000원	
	표3(표지 3면)	1,000,000원	
	표4(표지 4면)	1,500,000원	
	표2 연결면(대면)	800,000원	
	표3 연결면(대면)	700,000원	
	내지(1P~10P까지)	600,000원	
	내지(11P부터~)	500,000원	
잡지광고 (흑백)	본문 내지 반단	300,000원	
	본문 내지	300,000원	

광고문의 (031)707-5722~4 ‘월간 닭고기’ 편집부